2020

국립해양박물관
국내학술대회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국립해양박물관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제주대학교박물관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20

국립해양박물관
국내학술대회

해양
OCEAN JEJU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2020
국립해양박물관
국내학술대회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지난 2019년 5월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기관의 공통 분모인 해양을 매개로 해양 문물교류, 생활사와 관련된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기관은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공동전시를 기획하여, 4월부터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해양 제주 Ocean Jeju -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기획전을 개최하였고, 8월에는 국립제주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깊은 학술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 이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해양 제주가 육지 중심사관에서 탈피하여 해양 문명사적 측면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고대 해상왕국 탐라의 위상에서부터 국제적 해양네트워크속의 제주,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해양 제주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게 된 요즘, 해양 제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을 직접 모시지 못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신속히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또한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및 저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발표자 ·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 너머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0.

국립해양박물관

2020년 국립제주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 · 제주대학교박물관과 함께 기획전시 〈해양 제주 OCEAN JEJU〉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뜻한 봄날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시작한 전시는 뜨거운 여름날 제주 앞바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우리는 전시를 마무리하며, 제주를 해양문명사적으로 성찰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선사고대의 제주부터 해상왕국 탐라, 제주와 신화, 제주와 바깥세계, 제주의 해양생태계까지 제주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에 고민해야 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담론합니다. 전시에서 다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와 학술대회를 단초로 앞으로 세 기관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해양제주' 에 대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시대에는 들어본 적 없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전시실의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해야 했고, 온라인 개막식과 VR 전시 등 관람객들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학술대회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누구나 누리집에서 발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직무 대행 이종배 본부장님과 제주대학교박물관 오상학 관장님, 그리고 세 기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제주를 연구하고 옥고를 집필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염병이 수그러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특별전을 관람하고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2020.10.

국립제주박물관장 **김 유 식**

오늘 학술대회는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이 1년 여 기간을 함께 해 온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행사입니다.

3개 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제주바다'를 국내 · 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소장 유물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를 비롯한 행사들이 간소화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 여 동안 3개 박물관은 '해양 제주'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명제를 풀기위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였고, 부산과 제주에서 2회에 걸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생업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제주 바다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유물을 통해 '제주바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던 뜻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 바당'의 문명사적 흔적을 찾아 새로운 시각으로 제주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 바다가 제주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제주가 바다고, 바다가 곧 제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섬에 묶여 있던 제주 역사에 대한 문명사적 시각을 제주 바다, 혹은 바다를 넘어 세계로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변방의 작은 섬이라는 제주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힘든 시기에 학술대회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0.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오 상 학**

2020
국립해양박물관
국내학술대회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OCEAN JEJU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대강당

주관 / 주최
국립해양박물관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제주대학교박물관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목차 CONTENTS

SESSION 1

1. 선사 · 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 11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2.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 19
홍기표, 前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3. 신화 속의 해양제주 25
허남춘, 국립제주대학교 교수

SESSION 2

1. 제주인의 세계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31
박찬식, 前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2. 서양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37
오상학,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 관장

3.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 45
정석근, 국립제주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1. 해양제주, 그 문명사적 고찰 51
전영준, 국립제주대학교 교수

2.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 을 통해 생각하는 제주도 조간대의 중요성과 위기 55
임형묵, 깅이와 바당 대표

3. 표도와 표류의 해양제주와 제주인 표환 사례 61
김동전, 국립제주대학교 교수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SESSION 1 01

선사 · 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

김 경 주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1. 머리말

제주도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바다로 둘러싸인 독립된 섬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은 해양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 물질문화가 쉽게 찾아진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해안과 연계된 교류와 교섭이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제주도가 섬으로 변화된 것은 대략 15,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는 물론 일본열도와도 연륙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로에 의한 이동과 교류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차 해양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바다를 건너 왕래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원시적인 이동수단의 발명과 함께 본격적인 해양교류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탐라시대 이후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다양한 정치집단과 빈번한 교류가 진행되었는데 선박건조 기술이 매우 발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철과 옥제품 같이 제주지역에서 생산과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물품들이 이러한 해양교역루트를 통해서 수입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선사시대와 함께 고대 탐라의 대외교류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해양고고학적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사시대의 해양교류

제주도 최초의 인류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는 서귀포시 천지연 생수궤유적에서 찾아진다. 이 유적에서는 전형적인 좀돌날 석기가 수습되었는데 절대연대 분석결과 대략 25,000년 전 이후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시 제주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연륙되어 있으며 이는 곧 육로를 통한 이동과 교류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1) 제주 고산리유적 출토유물

제주 사람들의 본격적인 해양교류는 섬으로 이루어지는 15,000년 전 이후부터 시작된다. 대략 11,000년 전 해수면이 40m 정도 내려가고 7,000년 전 쯤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변화된다. 따라서 바다를 건너 다양한 집단과의 해양교류가 진행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 비롯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신석기시대 이른단계에는 고산리를 비롯한 다수의 생활유적에서 고산리식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고산리식토기 문화는 러시아 아무르강과 중국 송화강유역을 비롯한 일본열도의 조몬초창기 문화와 병행한다. 이후에 출현하는 융기문토기(기원전 6,000~4,500년경)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두 토기 문화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환경을 연결하는 토기양식임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반면 신석기시대 늦은 단계의 영선동식토기(기원전 4,500~3,500년경)와 봉계리식토기(기원전 2,700~2,000년경) 그리고 말기의 율리식토기(기원전 2000년 이후) 문화는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남해안의 동일한 토기문화권과 활발한 교류와 왕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처럼 제주해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교류의 네트워크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2) 제주 삼양동유적 출토유물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크고 작은 정착형 마을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먼저 이른 단계(기원전 8~5세기)에는 역삼동 · 흔암리문화로 대표되는 소규모의 네모꼴 집자리가 축조된다. 이러한 움집터는 한반도 중부 이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쉽게 찾아지는데 상호 교류과정에서 유입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신석기시대 말기 남해안권역과의 교역루트가 청동기시대로 전환되면서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반면 늦은단계(기원전4~2세기)에는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는 마을이 출현하고 성행한다. 집자리의 형태는 이전과 달리 둥근형태이며 그 내부 중앙에 타원형구덩이와 기둥구멍이 배치된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가 축조된다. 이 단계에는 고인돌을 비롯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늦은단계의 송국리문화는 기원전 6~5세기경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다시 제주에 유입된다. 이것은 한반도 중서부에서 시작하여 남부지역과 제주해협을 연결하는 교류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둥근꼴의 집자리는 매우 늦은단계로 가면 내부구조가 점차 간략화되고 철기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로 접어들면 기둥구멍만 잔존하거나 냇돌을 얹어 기둥을 받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움집터의 축조방식은 제주 서남부지역의 화순리와 강정동유적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기원후 2세기때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서북부의 청동기시대 중심 마을이 철기시대에는 서남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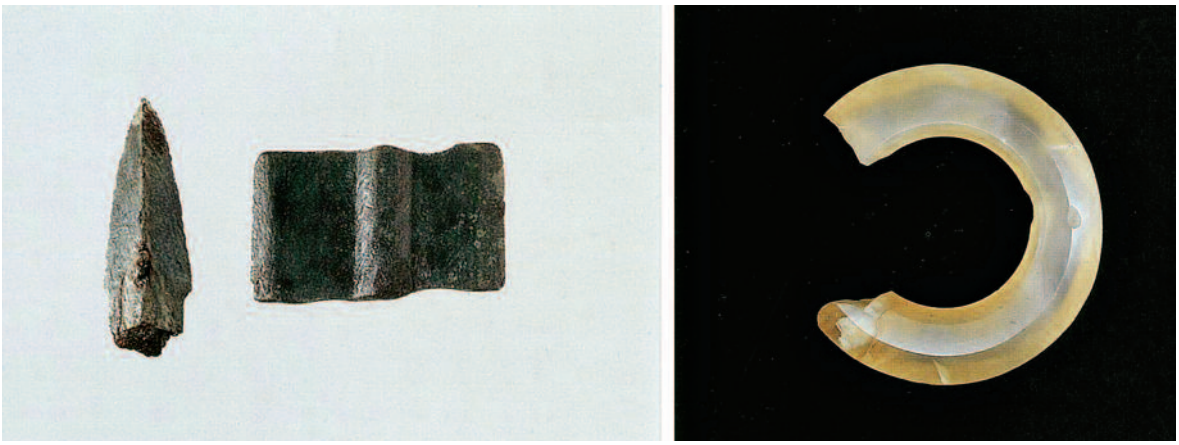


그림3) 제주 삼양동유적 출토 한식유물

철기시대 이래 수입품을 살펴보면 한식거울과 본뜬거울, 중국화폐, 청동검 장식품, 한국식동검, 청동제 화살촉, 옥팔찌, 대롱옥 그리고 다양한 유리구슬 등이 찾아진다. 이러한 유물은 제주에서 원료 생산이 불가능하며 외부에서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즉 중국 한나라와 관련된 유물에 해당하는데 대체로 한군현(낙랑)에서 삼한을 거쳐 제주에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화폐는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일본열도에서도 해안변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측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기록된 중국~한반도~일본열도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해상무역로상의 중심에 제주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요컨대 중국화폐의 분포는 동아시아 일대의 연안교역루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림4) 제주 산지항 출토 한식거울과 중국 화폐

다양한 한식유물의 독과점적인 수입을 위해 상위계층은 한반도 남부의 여러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한군현과의 교역루트가 개척되었음을 미루어 추정케 한다. 특히 전남 해남군 군곡리패총과 나주시 수문패총, 사천 늑도패총에서 제주산 바탕흙으로 만든 토기가 출토된 것은 제주와 삼한과의 활발한 교류를 밝혀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그림5) 제주 출토 변진한계 유물

3. 고대 탐라의 해양교류

기원후 3세기쯤 철제무기와 공구류를 다량 껴묻거리한 용담동 철기부 장묘의 조성은 탐라의 출현과 함께 상위계층의 등장을 의미한다. 탐라 시대는 영산강유역의 마한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이른단계(기원후 3~6세기)와 백제에 병합된 이후 교류대상의 주체가 바뀌는 기원후 6세기 중반 이후를 늦은단계(기원후 7~10세기)로 구분한다.

먼저 이른단계 탐라의 주요 교류대상은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과 함께 변진한 및 남부가야세력과 이루어진다. 최근 외도동과 곽지리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마한과 변진한 토기가 출토되는 점은 이를 입증

해주고 있다. 특히 마한토기가 다량 출토되는 점은 영산강유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철의 수입을 위해 호남 동부지역을 거쳐 남부가야에 이르는 교역루트를 개설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 하이테크테크놀로지의 지표였던 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남부가야와의 교섭체계가 견고하게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림6) 제주 출토 마한계 토기

탐라의 수장층은 남해안 일대의 마한과 남부가야와의 연안항로와 교역로를 개척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선진문물을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에서 출토되는 외지산 토기는 마한토기가 주류인 점을 고려하면 일상품의 수입은 영산강유역 주변의 해양항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7) 제주 출토 통일신라토기

6세기 중반 이후 백제는 영토확장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을 병합하고 섬진강유역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로 인해 탐라는 백제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대외교류와 교역

로는 자연스럽게 해체과정에 이른다. 이로 보건대 백제와 신속관계에 놓인 탐라의 대외교류는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주에서 백제토기와 유물이 거의 찾아지지 않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신라의 삼국통일 직후 탐라는 신라와의 대외교류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로 일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하지만 문무왕 19년(679)에 재경략되면서 탐라의 외교권이 신라에 귀속되면서 해양교류 역시 의존하게 된다.

4. 제주도 해양교류의 성격

후기 구석기시대는 제주가 한반도와 연륙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육로 이동과 교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으로 고립된다. 따라서 대략 10,000년 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해양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석기시대 이른단계의 제주 선주민들은 동아시아 일대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해양교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늦은단계는 주로 한반도 남해안 일대와 문화권이 공유되고 있다. 요컨대 이른단계는 동아시아적인 광역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늦은단계로 오면 오히려 한반도 남해안과 연계된 대외교류가 이루어진다.

한편 청동기시대에는 이전과 달리 크고 작은 정착형 마을이 등장하게 된다. 우선 이른단계의 주민들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성행하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와 달리 대외교류 혹은 상호 접촉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늦은단계의 집자리와 출토유물 역시 한반도 내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주민집단은 중서부 및 서남부지역과 교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남해안 중심의 해양교류를 벗어나 중서부 해안으로 연결되는 연안항로와 교역루트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철기시대 이후 주민집단은 서남부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시작되고 대외교류의 중심마을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는 한(낙랑)과 관련된 다양한 중원계 한식문물이 유입되는데 그 교류와 교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삼한을 통해서 한식문물이 유입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선진문물이 크게 성행했던 지역의 물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루트와 연결되는 연안항로의 개척은 불가피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탐라시대에는 철을 비롯한 선진문물의 도입을 위한 주요 교류지역이 다시 남해안 일대에 집중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철소재와 완성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남부가야와의 정치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선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철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관계로서의 남부가야가 있다면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문물의 수입은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과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후 백제의 영역확대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변화과정에서 탐라의 대외교류 창구는 단일화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5. 맺음말

제주의 선사시대 해양교류는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이른단계에는 동아시아적인 광범위한 교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늦은단계로 오면 남해안 주민집단과의 밀접한 교역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양 지역간 상호방문을 통한 접촉과 교류가 이전 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대외교류의 범위가 더 확대되기 시작한다. 남해안 중심의 교류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더욱 넓어지고 선진문물의 중심지역까지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의 청동기문화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문화권과 교류를 통해 여러 유적에서 재현되기도 한다. 또한 철기시대 이래 한식문물의 도입은 한(낙랑)과 관련된 정치집단과의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간접적인 교류관계를 통해 유입되었을지라도 남해안을 거쳐 중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연안항로가 개척되었음을 의미한다.

탐라시대의 해양교류는 철과 선진문물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남해안 일대에 집중된다. 즉 철광산과 생산의 거점인 남부가야와의 교섭을 통해 철소재를 확보하였고 반면 생필품의 수입은 영산강유역의 마한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백제의 영역확장과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대외교류의 다양한 루트는 대부분 해체되었다. 이로 인해 탐라는 남해안 일대의 해양교류 항로를 기착지로 하여 내륙을 통해 중앙정부와 교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SESSION 1 02

해상왕국 탐라

홍 기 표

| 前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

1. 호칭

탐라는 제주도의 옛 이름이다. 문헌에 의하면 제주濟州라는 호칭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한다. 1229년(고종 16) 송나라 상인이 '제주' 표류민 양용재梁用才 등 28명과 함께 고려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1] 또한 고종대 제주에 파견된 관리로 최자崔滋, 김구金坵, 노효정盧孝貞 등은 탐라령耽羅令 또는 탐라현령耽羅縣令이라 기록하지 않고 제주부사濟州副使라고 호칭한 사실도 확인된다.[2] 이리하여 고려 고종 때부터 탐라를 '제주'로 부른 사실이 확인된다. '제주'란 뜻은 '건널 제濟'와 '고을 주州'의 합성어이다. 즉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이란 뜻이다. 제주는 섬이고, 한반도에서는 배타고 바다 건너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다. 따라서 '제주'라는 지명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고, 한반도 입장에서 바라본 용어에 불과하다. 제주 섬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주'라는 호칭이 그리 달가운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제주'의 옛 이름 '탐라'에 더 애정 어린 시선을 갖게 된다.

사실 제주를 지칭하는 옛 이름도 문헌에 의하면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호州胡, 담모라聃牟羅, 탐모라耽牟羅, 탁라乇羅, 탐라耽羅, 담라儋羅, 섭라涉羅 등등. 이들 호칭 중 '주호', '섭라' 등은 과연 제주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다.[3] 하지만, 위의 호칭 모두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더구나 조선후기 사서인 『해동역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방언에 도島를 '섬剡'이라 하고, 국國을 '나라羅羅'라 하는데, 탐耽, 섭涉, 담儋 세 음은 모두 섬剡과 음이 비슷하니, 대개 섬나라를 이른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4] 따라서 제주 사람 입장에서는 '섬나라'라는 뜻을 지닌 탐라에 더 호감이 갈 수밖에 없다.

2. 신화

섬나라인 탐라는 자체 개국신화도 전한다. 15세기 중반에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 등에 의하면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의 세 신인神人이 땅(모흥혈, 삼성혈)에서 솟아 나왔으며, 이들은 일본국(벽랑국) 사신이 모시고 온 세 공주와 혼인하여 각각 일도, 이도, 삼도에 거주하며 자손을 번성

---

1. 『고려사』 고종16년(1229) 2월 을축.
2. 고려에서 제주에 최초로 파견된 관리로 최척경(1162, 의종16), 조동희(1168, 의종22), 장윤문(1186, 명종16) 등은 탐라령, 탐라안무사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자(1234, 고종21)와 김구(1234, 고종21) 각각 제주부사 및 제주판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노효정(1244, 고종31)은 제주부사라고 되어 있다.
3. 장창은, 「사서에 남겨진 고대 탐라국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탐라문화연구원, 2019.
4. 한치윤, 『해동역사』 권16, 「제소국諸小國」, 탐라.

시켰다고 한다.[5]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조는 땅에서 솟아났다. 둘째, 바다를 통해 들어온 여인과 혼인하여 자손을 번성시켰다. 통상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강天降, 또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卵生의 특성을 지닌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천제인 해모수의 아들인데, 알에서 태어난다. 신라의 박혁거세와 김알지, 가야의 김수로 등도 알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탐라국의 시조 삼을나三乙那는 땅에서 솟아난 지용地湧의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건국신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시조가 땅에서 솟아났다는 신화는 오히려 동남아, 남중국, 오키나와 등지에서 전한다.[6] 이 때문에 제주의 선주민은 남방문화의 유입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다. '지용'의 개국신화는 무엇보다도 대지(섬)에 근원을 두며 살아야 하는 제주민의 숙명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다를 통해 들어 온 세 공주와의 혼인은 외래문화의 수용과 화합을 뜻한다. 즉 제주민은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데, 삶의 조건은 고립성, 폐쇄성보다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탐라의 개국신화에서 읽을 수 있다.

3. 고고학

탐라는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제주시 어음리 빌레못동굴 및 서귀포시 천지연 생수궤동굴 유적에서 최소한 25,000년전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7] 물론 이때는 제주도가 연륙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유적, 유물이 드러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1만 년 전부터의 신석기 유적은 제주 전역에서 발굴되고 있다. 제주시에는 고산리 유적을 필두로 삼양동, 외도동, 용담동, 오라동, 김녕리 등, 서귀포시에서는 온평리, 성읍리, 하모리, 강정동, 사계리 등 대략 70여 개소가 보고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신석기 토기편들은 한반도 남해안 일대의 토기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초기를 대표하는 고산리 출토 유물은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독자성도 띠고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에는 무문토기류의 출토 등을 근거로 제주에 약 33개소의 유적지가 확인되며[8], 약 100여기의 고인돌도 분포하고 있다. 또한 청동기 말기,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 제주시 삼양동 유적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 유적에 환옥, 동검 등의 각종 위세품威勢品까지 출토되어 탐라국 형성기 제주민의

5. 『고려사』 권57, 지리지, 탐라현.
6. 채미하,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의 역할과 위상」,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탐라문화연구원, 2019.
7.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생수궤유적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0.
8. 강창화, 「제주의 고고학」, 『제주학개론』, 2017.

사회 모습을 잘 보여준다.[9]

1928년 제주시 건입동 산지항 축항 공사 때는 중국 화폐 총 18점이 출토되었다. 오수전五銖錢, 화천貨泉, 대천오십大泉五十, 화포貨布 등이 그것이다. 오수전은 중국 한漢나라 시대 화폐이며, 화천, 대천오십, 화포 등은 전한과 후한 사이 왕망王莽이 세운 신新나라 화폐이다. 특히 화천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와 구좌읍 종달리 패총 등 제주도 북부 연안 곳곳에서 발굴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화천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복룡동 유적, 나주 복암리 유적, 해남 군곡리 패총, 김해 회현리 패총 등이 그곳이다.[10] 이 때문에 1세기 경 전후 탐라는 최소한 한반도 서남해 연안지역 또는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용담동, 삼양동 등지에서 출토되는 한식 유물(청동기, 철기, 옥기 등)을 통해 탐라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에 이르는 동안 한-낙랑-삼한-왜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역로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도 고고학적 성과로 밝혀진 바 있다.[11] 더 나아가 외도동, 곽지리, 금성리 등지에서 출토되는 토기류는 한반도 남부의 마한 및 소가야계의 토기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3~6세기 탐라와 한반도 남해안 일대와의 교역을 상정하기도 한다.[12] 이로 인해 탐라는 일찍부터 한반도와의 활발한 해상교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직간접 교역에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4. 역사학

탐라국은 백제, 고구려, 신라 등 한반도의 삼국은 물론 중국 및 일본과도 교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세기 후반부터 탐라는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방물'을 바쳤다.[13] 660년 백제 멸망 이후, 백제부흥군은 왜군 및 탐라 지원군과 함께 나당연합군에 맞서며 백강전투(663)를 벌였다. 그 전투에서 패배한 3국(백제, 왜, 탐라)과 신라의 '사신'이 665년 당장唐將 유인궤劉仁軌를 따라 태산의 봉선의식에 참여하였다.[14] 이후 679년(문무왕 19)에는 신라가 탐라에 '사신'을 보내 경략하였고,[15] 801년

9. 제주대박물관, 『제주 삼양동유적』, 2001~2002.
10. 이청규, 강창화, 「제주도 출토 한 대 화폐유물의 한 예」, 『한국상고사학보(17)』, 1994; 김경칠, 『호남지방의 원삼국시대 대외교류』, 학연문화사, 2009; 김경주, 「고고유물을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역」, 『탐라사의 재해석』, 2013; 장창은, 앞의 글, 2019.
11. 김경주, 「고고유물을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역」, 『탐라사의 재해석』, 2013.
12. 김경주,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탐라문화연구원, 2019.
13.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2년(476) 4월; 동성왕 20년(498) 8월.
1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5년(665) 8월; 『구당서』 권84, 유인궤전.
1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9년(679) 2월.

(애장왕 2)에는 탐라에서 신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16] 중국측 사서인 『신당서』 및 『당회요』에도 661년 탐라에서 '사신'을 당나라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17] 이는 『책부원귀』에도 '외신부外臣部'에 탐라를 소개하며 해변의 소국으로 탐라국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조공했다고 되어 있다.[18] 『일본서기』에는 661년부터 693년까지 탐라와 일본과의 '사신' 교류 기사가 20여 차례나 등장하고,[19] 그 중 두 차례는 일본이 탐라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이다.[20]

이상을 살펴볼 때 탐라는 5세기부터 백제와 조공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7세기 중반 이후에는 당과 일본에까지 사신을 파견하였다. 신라통일 이후에는 신라와 일본이 탐라에 사신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탐라국의 일방적인 '사신' 파견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사신'을 보내올 정도로 탐라는 '독립국'의 위상을 지녔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 측 사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사서에도 탐라를 '국國'으로 소개하고, 사신 파견과 방물 교류의 조공외교가 펼쳐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5. 해상왕국 탐라

문헌상 탐라는 5세기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7세기에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정학적으로 세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자존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펼쳤다. 또한 섬나라이기에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는 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한반도의 연안항로를 통한 교류가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661년 당나라 사신 파견에서 짐작되듯이 한반도 중부에서 중국 산둥반도로 이어지는 대중국 항로를 탐라는 숙지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는 수십 차례에 걸친 사신 왕래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를 통한 한반도 남부 연안 항로보다는 이미 탐라와 일본(축차 또는 난파)간 직항로가 개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일본 견당사의 탐라 표착(661)[21] 때문에 일본과 당나라 사이의 항로까지 간파하게 되었다. 따라서 탐라는 7세기 중반 당시 동아시아 정세 변동을 통해 다양한 항로를 탐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안이 아닌

1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2년(801) 10월.
17. 『신당서』 권220, 열전145, 유귀(流鬼); 『당회요』 권100, 탐라국.
18. 『책부원귀』 권970, 외신부, 조공.
19. 『일본서기』 권26 제명 7년(661) 5월 ~ 권30, 지통 7년(693) 11월.
20. 『일본서기』 권29, 천무 8년(680) 9월; 천무 13년(685) 10월; 천무 14년(686) 8월.
21. 『일본서기』 권26, 제명 7년(661) 5월.

대양 항해까지 가능한 선단을 보유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탐라국은 일찍부터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탐라국은 '섬'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탄생하였다. 외래 문물과의 교류와 화합은 섬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테마였다. 자연스레 탐라민은 고립성, 폐쇄성보다는 개방성, 포용성을 삶의 조건으로 인식하며 성장하였다. 또한 탐라국은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과 평화적 교류에 심혈을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며 그들과의 공존, 공생을 도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은 탐라가 해상왕국으로 발돋움하는 방편이 되었다.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SESSION 1 03

신화 속 해양 제주

허 남 춘

| 국립제주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

1. 바다를 건너 온 신

제주는 한반도의 일부분이지만 동북아시아와 만주에서 비롯된 북방계 문화와 해양으로부터 비롯된 남방계 문화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반도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한반도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그렇다면 그런 영향이 없던 제주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립의 섬 제주가 탄생하는 과정이 신화 본풀이 속에 남아 있다.

당신본풀이를 보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위주로 하다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신들이 등장하고, 중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유를 은근히 덧보탰다. 일반신본풀이에 땅에서 솟아나는 모티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서 후대에 만들어지거나 육지에서 유입된 신화일 것으로 보인다. 당신본풀이에는 그 출자 방식이 다양하다.

온평리는 바로 탐라건국신화의 세 여신이 도착한 곳으로 구전된다. 온평리 당본풀이의 세 여신과 탐라건국신화의 세 여신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바다를 건너는 신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문헌신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탐라건국신화의 3여신은 바다 먼 곳에서부터 출자한다. 그곳은 '벽랑국碧浪國' 혹은 '일본국' 이라 한다. 벽랑국은 바다 먼 상상의 땅, 니라이가나이와 같은 해양낙토로 본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신은 인간에게 불이라거나 생명과 연관된 것을 가져다준다고 여겼고, 그 다음 시기에는 비단, 철, 오곡종자 등 고대문명을 전해 준다고 여겼다. 제주의 민속에도 1년에 한 번 내방하는 영등신이 있다. 바다를 곁에 둔 제주사람들에게 어업과 물질작업은 매우 중요했고, 이와 연관된 영등제는 제주 해양문화를 살피는 데 중요한 신앙이다.

육지의 영등은 하늘에서 내려온다[22] 고 여겼는데 반해 제주에서는 바다 저 편 '강남천자국' 에서 온다고 여겼다. 영등신은 풍신의 성격이 강하다. 이 신은 풍신의 성격이 강하지만, 바람은 해상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촌의 경우 어업과 관계 깊은 신으로 변모된 듯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는 해상안전, 풍어, 해녀 채취물의 증식 보호신으로 신앙하게 된 것이다.[23] 영등신은 풍신에서 풍요신격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이 영등신앙은 바닷가에 널리 분포하는 용왕 신앙과 밀접하다. 영등제는 영등신을 모시는 의례인데, 그 제차를 보면 요왕맞이를 주로 하고 있다. '요왕질침' 은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함께 치워 닦음을 그 사설 내용에서 알 수 있다.[24] 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의이면서 용신에 대한 제의를 겸하고 있는데, 영등신이건 용신이건 바다의 풍요신격이기에 혼효되어 버렸다. 제주 칠머리당

22. 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비교민속학』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79쪽.
24.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69쪽.

영등굿도 그렇다. 본향당굿인데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관과 용왕부인을 모시면서 영등신을 함께 모시고 있다. 영등굿의 주요 제차에 용왕맞이를 담고 있기도 하고, 본향당신을 모시는 자리에 영등신이 주요한 신격으로 모셔지니, 그 둘은 바다의 풍요신으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2. 바다를 관장하는 용신

세상은 물과 뭍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이 뭍보다 훨씬 넓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바탕은 뭍이다. 뭍이 부족하고 불편할 때 인류는 물로 향했다. 땅은 풍요의 원천 같지만 누군가가 차지하고 지배하는 원천이 되고부터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땅이 메마르고 결핍일 때 물의 근원인 바다로 향했다. 풍요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바다로 향했다. 그래서 바다는 유토피아가 되었다. 바다 멀리 어느 곳에서 인간에게 불이 전래되고, 곡식 종자가 전래되고, 그런 귀한 문명을 가져오는 여신의 신화가 배태되었다.

그러나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다. 풍어를 위해서 숱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했다.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자연의 위대한 힘에 직면하여 그 초자연적 존재에 경배하게 되었다. 깊은 바다 안쪽에 바다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파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바다의 신격에 의해서, 고기를 잘 잡게 해 주는 것도 바다의 신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다. 그 바다의 대표적 신격은 용신 혹은 용왕이다.

그러나 어부의 안전과 풍어를 관장하는 신이 용왕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바닷가의 당신이 보살피기도 하고 바다 언덕의 산신이 보살피기도 한다고 믿었다. 갯당 할머니이건 산신이건 모두 마을 수호신이고 어부 수호신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중세 종교인 불교와 유교가 전래되면서 관음신이 바다의 수호신 역할을 하기도 했고, 중국에서 들어온 마조신이 그 역할을 떠맡기도 하였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어부를 구해주고 어부의 풍요도 관장한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임경업 장군과 최영 장군도 어부의 신이 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신이 어부 수호신으로 좌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양 신앙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바닷사람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와 기원이 수많은 해양 신을 만들어 냈다.

제주의 '젯ᄃᆞ리'(제의 절차)에 따르면 해양신앙과 관련된 신으로 '다섯龍宮'을 꼽을 수 있다. 하늘 차지 옥황상제, 땅 차지 지부사천대왕, 산 차지 산신대왕 산신백관 다음인 네 번째로 바다 차지 龍神인 '다섯龍宮'이 제시된다. '다섯龍宮'은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방위의 용신을 말한다. 위계상으로 보아 용신은 매우 중요한 신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굿의 절차에서 옥황상제(하늘), 지부사천대왕(땅), 산신대왕(산)에 이어 네 번째로 용왕신이 모셔지는데, 그 용왕신은 다섯으로 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바다를 중시했고 동해, 서해, 남해를 두루 거느리는 용신의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유교 예악사상의 영향을 받아 5방의 용신이 등장하게 된다. 하늘, 땅, 산, 바다의 신들이 모셔지는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된다. 천지신을 위하고, 산신과 해신을 모시는 우리 민족의 신 관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바다를 건너는 영웅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여신의 도래渡來이다. 여신들은 오곡종자를 가지고 들어온다. 철기문화 · 직조문화 · 농경문화는 고대문명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들은 고대국가 형성에 긴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와 비단과 오곡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낸 이야기가 고대 건국신화의 주류를 이룬다. 제주의 삼성신화도 이런 반열에 든다고 하겠다. 제주 건국신화에서는 3여신이 오곡종자 외에 송아지 · 망아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소와 말 역시 농경에 필요한 동력이었다. 제주에는 당신본풀이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부부신이 좌정하여 있는 경우 남신이 토착신이라면 여신은 도래신이다. 여신이 본향당의 주인인 경우도 많은데 바다를 건너온 여신이 많다. 그런데 여신이 주역인 상황에서 서서히 남신이 주역인 당본풀이가 많아졌을 것으로 본다. 설문대할망처럼 거인 여성이 주역이던 신화가 소로소천국같이 거인 남성이 주역인 신화로 바뀌어가고, 그 거인의 특성은 아들 궤네깃도로 이어진다. 여성영웅 서사시에서 남성영웅 서사시로 전개되어 나간다.

제주의 서사무가 중 괴네깃당본풀이 또는 같은 계열의 송당본풀이는 삼성신화의 근원적 신화에 해당된다.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삼성신화의 삼신인도 땅에서 솟아났다. 송당본풀이가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의 상 · 중 · 하당의 세 신당이 공존하듯이, 삼성신화에서는 고을라 · 양을라 · 부을라의 삼신인이 등장한다. 송당본풀이의 여신 백주또가 무쇠철갑에 실려 제주에 표착하고 있듯이 삼성신화의 삼여신도 목함과 석함에 담겨 제주에 표착하고 있다. 송당본풀이의 남신이 사냥을 위주로 하고 여신(백주또)는 남신으로 하여금 농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하듯이, 삼성신화에서 남신들은 사냥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데 삼여신은 오곡종자를 가져와 농사를 시작한다. 송당본풀이의 남신(문곡성,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제주도 전체를 지배하는 신격이 되듯이 삼성신화의 삼신인이 탐라국을 건국하여

제주 전체를 지배하는 신격이 된다.[25]

송당본풀이의 문곡성 혹은 궤네깃당본풀이의 궤네깃도와 같은 주인공이 천자국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난리를 평정했다는 것은 주인공의 대단한 영웅적 면모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자국(중국)에서 인정하는 활약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천하의 반을 갈라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제주에 돌아온 내력은 주인공의 해상능력을 보여주는 바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칠머리당의 신도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났는데, 백만 대병을 거느리고 제주에 들어온다. 백만 군사와 삼천 군병은 엄청난 해상 세력을 거느린 영웅에 대한 장식적 표현이다.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탐라국 건국서사시'가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탐라국의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4. 바다 바깥과의 교류

영등신과 삼여신을 비롯한 무수한 제주의 신이 출자한 강남천자국이 어디인가. 천상계에서 하강하는 고대 건국신화 뒤에는 바다 건너 땅에서 도래하는 시조도래신화가 탄생한다.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기본 설정은, 문명권 중심부의 인물이 주변부로 도래해서 현지의 지배자 신분의 여성과 결혼하고 그곳의 통치자가 되어 문명을 전파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도래한 인물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어서, 왕이 되지 않고 왕후가 되었다고 했다. 여성신이 문명을 전한 문맥이다. 삼여신이 망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곡종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고대문명을 전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당본풀이에서 중국 혹은 천자국을 빙자한 것은 중세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대에 형성된 당본풀이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중세국가인 고려의 권위를 빌려 당신의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중세국가의 중심축이라 할 중국의 권위를 빌려 신성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고대의 탐라국이 중세화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중세국가에 예속되면서 중심부와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그 권위를 가져다 당신의 권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서울 혹은 중국에서 출자했다고 변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구비전승은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문맥이 끊임없이 쇄신된다.

2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89쪽.

5. 결

제주는 육지와 다른 점이 많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신화나 신앙체계도 다르고 문화 인식도 다르다. 한반도의 신화는 천상에서 하강한 신의 내력이 위주인데 제주 신은 땅에서 솟아난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대개 바다를 건너온다. 바다 멀리 출자처는 다양하다. 바다 멀리 상상의 나라일 수도 있고 일본과 중국 같은 구체적인 장소인 경우도 있다. 육지에서 출자한 경우도 많은데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온 경우와 제주에서 가까운 전라도에서 해로를 따라 온 경우가 많다. 제주와 인접한 일본에서 신이 온다고 하거나 바다의 신이 일본 주년국에 가서 신이 되었다고 한 경우도 있다. 바다 멀리를 '강남'으로 사유한 흔적이 있는데, 그 땅을 '천자국'으로 인식하여 '강남천자국'이라 한 경우도 많다. 위대한 신이 중국 천자의 땅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신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 중세 때의 보편적인 변화였다. 고대에는 고대국가 중심부에서 왔다고 하였고, 중세에는 문명의 중심부 중국에서 왔다는 관념이 신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바다를 근거로 살다 보니 바닷속 용왕신이 그들 삶을 지배한다고 여겨 주요 신앙대상이 되었고, 용왕의 딸이 인간세계에 와서 신앙대상이 된 경우도 많다. 바다의 신이 생산과 풍요를 주재한다는 생각은 생명 탄생의 신이 바다에서 온다고 하는 사유로 이어졌다. 그래서 산육신이 용왕의 딸이다. 일반신인 삼승할망이 좌정하기 전에 그 일을 맡았던 구삼승할망이 용왕의 딸이고, 마을마다 있는 일렛당의 당신이 용왕의 딸이다. 영등신이 1년에 한 번 내방하여 해산물의 풍요를 관장한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다. 역시 바다를 건너온 외래신이 중요하게 신앙된 흔적이다.

제주에 있어 바다는 풍요의 근거였고, 많은 신들이 오는 길목이었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던 소통의 장이었다. 바다를 통해 일본 · 중국과 교류하였고 이따금 표류를 겪으면서 오키나와 · 대만 · 월남에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그 숱한 표류의 기억이 정운경의 〈탐라문견록〉에 나타나는데, 조선 후기 실학파 지식인들은 바다 밖의 사정을 이 제주 표류민을 통해 얻어들을 수 있었다. 제주는 자의건 타의건 바다로 열린 섬이었다. 제주는 태평양을 향한 교두보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제 다시 바다를 향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제주의 해양 정책이 필요하고, 태평양을 향한 해양 연구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SESSION 2 01

제주인의 세계 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박 찬 식

| 역사학자, 前 제주학연구센터장 |

제주는 신비의 한라산을 가운데 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섬과 산, 바다는 자기완결적인 제주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규정하는 공간적 요소이다. 바다는 자기와 남들을 구별하여 주는 확실한 경계로 인식된다. 경계의 확정성은 자아의식과 주체성의 확립을 뜻하고, 남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의 계기성을 부여하며 공동체성을 강고히 유지시키는 기능도 한다.

섬이라는 격절성은 제주사람들을 자급생활에 익숙하게 하였고, 자기완결성의 경제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립성을 자연 기르게 되었다. 한라산은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보존함으로써, 용천수를 생성케 하였고, 제주사람들은 물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해 갔다. 바람이 많은 악조건에 적절히 대처하여 돌담 등 방풍구조를 이루어냈고, 바람을 활용하여 항해에 나서기도 하였다.

제주를 에워싼 바다는 땅보다도 훨씬 외부와 원활하게 교류하게 하는 연결매체로도 작용해 왔다. 이것은 우리가 격절의 공간으로 바다를 규정하는 고정관념의 해체를 요구한다. 제주사람들은 섬의 폐쇄성을 바다를 통하여 개척하여 갔다. 바다는 열려진 공간이었다. 출륙금지령이 내려졌던 조선후기를 제외하면, 제주사람들은 항상 바다를 통해 한반도, 일본, 중국 등지의 주민들과 대외교류를 하였다. 고려시대나 조선초기까지만 하여도 제주도의 선박 제조 기술이 한반도의 것을 능가하였다고 문헌은 전하고 있다. 바다를 대외교류의 무대로 삼았던 제주사람들의 기질을 배타적이나 폐쇄적으로 바라봄은 분명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는 높은 한라산과 망망대해의 태평양을 안고 있다. 또한 바다는 인간에게 오랫동안 연결의 공간이었고, 제주는 동아시아 교통의 거점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제주인의 독특한 자연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우주중심적적인 사유체계와 상생적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다. 다신多神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인간, 바다와 산 등 상대적인 것과의 상생성은 바로 이러한 자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사실, 동아시아 동서남북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사실 등은 제주역사와 제주정신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제주섬은 신화와 풍속 등 기층문화를 담고 있는 남방해양문화와 지배권력과 언어 · 문자 등 지배층의 북방 대륙문화가 교차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상극적인 요소와 공존은 선주민으로서의 남방계통의 종족과 이주민으로서 한반도 유목 · 농경민족의 결합과정과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제주인의 정신세계에는 완결된 자기세계관의 형성과 수용과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개방성이 결합되어 있다.

제주도는 해양과 대륙의 문화가 만나고, 바다와 육지를 매개하는 도서라는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들이 교차되어 온 곳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제주도는

변방에 위치하는 섬이나 해양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제주도는 주변의 다양한 지역들과 교역하고 문화적 소통을 이루어온 거점지역이었다.

제주도의 역사는 크게 보아 독립국으로서의 탐라국 시대와 탐라국의 해체 이후 중앙왕조국가에 하나의 지방으로 편입된 시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상고시대 제주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지방이 아니라, 한반도, 중국, 일본과 대등한 교역 · 외교관계를 맺었던 독립국이었다. 즉, 탐라국 시대의 제주도는 해양 중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 지역이었다. 2천 년 전 동북아시아 섬들 가운데 탐라와 같이 고대문명국가 이루어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중해 섬들 가운데 크레타 섬이 기원전 2천 년에 해상교역과 선진 오리엔트 문명권 이주민의 유입에 따라 고대문명국가를 이루어냈듯이, 제주섬에 탐라 고대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해양국가로서의 탐라국은 1천년의 수명을 다하고 고려 숙종 10년(1105)에 한반도의 중앙집권국가인 고려왕조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였다. 고려시대 중앙왕조에 편입된 직후 제주도민들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여러 번에 걸친 민란을 일으켰다. 삼별초三別抄가 중앙정부와 몽골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입도하자, 제주민들은 이들과 연합하여 고려조정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수십 년간 제주도는 몽골의 직할령이 되어 섬 곳곳에 목마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제주도는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던 몽골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몽골은 제주도를 해양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였다. 선박의 제작, 군마의 양성, 법화사의 중창, 궁궐(임시수도) 건설 시도 등 제주에 대한 몽골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제주도가 해양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제주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록 자율적인 입장에서 대외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제주사람들은 몽골, 일본, 한반도에 에워싸여 있는 동아시아 해역을 자신들의 활동 무대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제주도가 중앙의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되었다. 제주도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 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갔다. 제주사람들의 대외관계는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접촉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조선전기에 제주사람들은 바다를 무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조선 초 사료에는 왜구와는 구별되는 해민海民 집단이 보이는데, 이들은 분명 제주사람이었다. 이들은 배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조선왕조실록』에는 '以船爲家' 로 표현됨) 바다를 무대로 이동하고 장기간 제주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무리를 이루어 집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사료에는 이들을 일컬어 두독야지豆禿也只나 두무악頭無岳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제주인들에게는 폐쇄적 상황이 강요되었다. 17세기 인조대로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 19세기 초까지 2백 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선왕조 말기에 제주민들은 민란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 제주도는 근대사회로 넘어가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 제주도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인 어부들이 제주도 어장으로 진출하며 제주도 연안 마을에 모습을 나타냈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섬에 들어와 서구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제주도민은 중앙에 바치던 말 · 귤 · 전복 등 진상에서 해방되었고, 근대식 행정체계 및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새로운 행정관리가 등장하고 신학문이 대두하였다. 개항과 개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제주도는 출륙금지령을 내려 유배의 섬으로 묶어놓았던 조선왕조의 변방이 아니라, 자본과 문명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갔다. 19세기 말 제주사람들은 세계와 만나고 있었다.

새로운 지역사회의 지배엘리트들은 시대적 변화를 자각하였고 섬 밖으로 유학하여 근대교육의 세례를 받았다. 전국적인 근대교육의 추세에 따라 의신학교 · 제주공립보통학교 · 신성여학교 등 근대학교가 속속 설립되었다. 개항은 교통과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많은 제주도민들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내륙지방이나 일본 등지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해녀들의 내륙지방 출가 물질은 조선후기 출륙금지령에 얽매여 있던 제주 여성들의 해양유목민 기질을 더할 나위 없이 보여준 특수한 현상이었다.

개항은 제주도민들에게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외부 문명과 문화를 접촉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게 되었다. 종전의 중앙사 · 국가사 · 민족사 관점 또는 내재적 발전론, 근대화론에 비추어 볼 때 소외되었던 경계지대 · 주변부 · 마이너리티minority 제주섬 주민들이 새로이 경험한 세계관을 이제는 근대성의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과 멀리 떨어진 변방 섬 제주도에도 세계자본주의의 영향은 미쳐왔으며, 특히 왕조국가와는 다른 '지역의 전통' 에서 해방된 '근대성' 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특히 출륙금지와 폐쇄의 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향해 나아간 제주섬 주민들의 경험은 경계지대 주민들의 보편적인 근대성 체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한국의 역사는 타민족 일제의 지배 하에서 더욱 심하게 왜곡되었다. 이 시기 제주사회는 한국의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심한 식민지적 수탈과 착취, 민족차별적 탄압을 받는 가운데

이전 시기보다 예속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침탈과 저항의 역사로 점철된 식민지시대에도 제주사회는 꾸준히 내면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인구는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늘었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제주민들이 일본 오사카의 공장을 찾아 제주바다를 건넜다. 잠녀들은 무리를 지어 남해, 동해, 일본 연안 등으로 출가 잠수 노동에 나섰다. 이제 제주사람들은 제주도 안에 갇혀 살지 않고 밖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한편 제주도 내의 신흥가문의 자제 가운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한 청년엘리트들이 많았는데, 사회주의 · 자유주의 · 아나키즘 등 서구이념을 수용한 상당수의 민족운동가가 배출되었다.

결국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제주도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근대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민족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되어 민족교육과 야학이 유행하였고, 그 결과 활발할 항일운동이 펼쳐졌다. 또한 자본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밖에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제주도 밖으로의 활발한 진출은 제주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수백 년간 섬 안에 갇혀있던 제주민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억압과 착취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던 굴레를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대, 또 다른 근대이기도 했다.

제주사람들은 지금까지 제주도를 중앙정부의 한 행정구역으로, 폐쇄적인 섬으로 인식하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의 과거 역사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조 국가였던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말이나 키우는 변방으로 취급되었고, 출륙금지령 때문에 바다에 에워싸인 숨 막히는 삶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축소 지향의 삶은 일제 식민지시대와 해방 이후 냉전과 군사문화의 현대사를 거치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은 인구 백만 내외의 소규모 독립국가 또는 자치정부를 이루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섬은 해상왕국, 해상교역, 활발한 이주 등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륙의 중앙집권국가에 정복당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섬에 대한 이미지는 유배, 격리, 침탈, 정복, 원주민 학살, 수난 등의 부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동안 바다는 거친 자연, 태풍, 위험, 외국의 침략 창구 등 섬을 고립시키고 가두어버린 공간이었다. 그러기에 섬사람들은 바닷길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가난과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가 과거 '탐라' 독립왕국이었듯이, 세계의 섬들은 독립국 또는 자치주나 자치도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스페인의 마요르카, 프랑스의 코르시카와 같은 지중해 섬들은 제주도처럼 경제 자립을 위해 특별자치를 선택했다. 오늘날 섬을 변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적어졌다. 오히려 새로운 해양문명의 중심이고 인류 문명이 지속 번영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해양문명의 주도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제주의 해양문화적 요소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오키나와, 대만, 일본열도, 남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 제주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동아지중해 문화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여러 지역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21세기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OCEAN JEJU

SESSION 2 02

서양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26]

오 상 학

|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장 |

1. 미지의 세계 : 도적섬

서양에서 제주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6세기 이후이다. 이 시기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인식하게 되고 지도에도 제주가 한반도의 끝 부분에 그려진다. 그런데 이 시기 제작된 몇몇 지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해당하는 곳에 포르투갈어로 '도적섬Ilhas dos Ladrones' 이라 표기되어 있다. 1595년 테이세라가 그린 일본 지도가 대표적이다. 원래 '도적섬' 이라는 명칭은 마젤란이 1521년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지금의 마리아나 제도를 발견하고 붙인 이름인데, 당시 동아시아 지역을 항해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대마도 일대 해상에서 출몰하는 해적 이야기를 듣고 이를 경계하고자 '도적섬' 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그림 1. 테이세라의 일본도(1595년,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의 무대』 제5판에 수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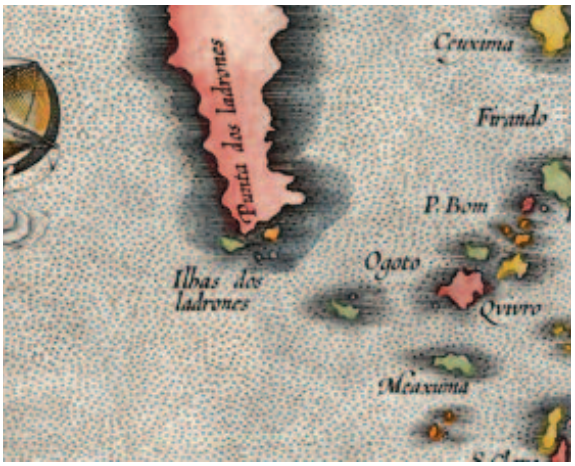


그림 2. 세부도

2. 인식의 혼란 : 풍마도

이후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제주는 '풍마도I. Fungma, Fongma' 로 표기된다. 풍마도는 1655년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마르띠니의 「중국지도첩」에 처음 등장한다. 마르띠니는 1643년 중국에 도착하여 1650년까지 체류하면서 포교활동과 더불어 중국의 지리를 연구했다. 나홍선의 『광여도』와 주사본의 중국지도를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르띠니는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에 머무는 동안 중국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블라우 가문의 요안 블라우Joan Blaeu와 함께 1655년 『중국지도첩Novas Atlas Sinensis』을 간행했다. 여기에 수록된 중국전도에 한국이 분명하게 반도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제주도는 풍마도I. Fungma로 표기되었다.

---

26. 본고는 『한국고지도연구』(2016)에 실린 필자의 논문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서양인이 명명한 '풍마도'는 당시 지식 정보의 네트워크를 고려한다면 중국 지도의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 Fungma'의 유래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주도가 목마장으로 명성이 있어서 풍마가 '豊馬'에서, 또는 바람과 말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風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실증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중국의 고지도 가운데 한반도 동남쪽에 '鳳馬島'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볼 때 'I. Fungma'는 이 '봉마도'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제주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마르띠니의 중국전도(1655년,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4. 세부도

1686년(강희 25)에 간행된 『增訂廣輿記』에 『天下地輿全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중국 전도가 들어가 있다. 지도의 제목은 「大淸一統全圖」로 되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려진 지도이다. 지도의 한반도 동남쪽에는 섬이 크게 그려져 있고 '鳳馬島'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위치로 볼 때 제주도보다는 대마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에 여러 섬이 작게 그려져 있으나 제주도는 보이지 않는다. 마르띠니는 이러한 유형의 지도를 참고하여 중국전도를 그렸는데, 봉마도를 대마도가 아닌 제주도로 인식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림 5. 「대청일통전도」
(1686년,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3. 제주 인식의 획기: 켈파트

17세기에는 '풍마도'와 더불어 '켈파트Quelpart'가 등장한다. 켈파트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연합동인도회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1630년경 동인도 회사에서 선폭이 좁고 긴 갤리선을 제작하였는데, 이 배의 이름이 켈파트였다. 1642년경 이 선박은 일본을 향해 항해하다가 제주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그 섬을 켈파트라 명명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고했다. 켈파트라는 지명은 이후 동인도회사의 보고서와 해도에 수록되었는데, 1649년 네덜란드의 블라우는 양피지에 자바에서 일본 큐슈에 이르는 지역의 해도를 그렸는데, 이 지도의 일본 Cikoko(큐슈 지역) 서쪽 해상에 마름모꼴로 Quelpaert라는 섬을 그려 넣었다. 이 지도는 현존하는 지도 가운데 켈파트가 표현된 최초의 지도가 된다.

블라우의 해도에 처음으로 그려진 켈파트는 1655년 마르티니와 공동으로 제작한 『신중국지도첩』의 일본지도에도 반영된다. 지도에는 지금의 큐슈의 서쪽, 한반도의 남쪽 위도 33도 근처에 마름모의 형태로 섬을 그려 넣었다. 그러나 1649년의 해도와는 달리 켈파트라는 지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남해안에 제주도에 해당하는 풍마와 또 다른 제주도인 켈파트를 동시에 그린 최초의 지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측 자료와 비실측 자료가 서로 혼재되어 제주도가 표현된 것이다.

한편 1653년 제주에 도착한 하멜은 이전부터 켈파트라는 섬을 알고 있었고, 일등항해사의 관측에 의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켈파트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멜보고서를 바탕으로 1668년 『하멜표류기』로 출간되면서 서양인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제주도는 서양에서 켈파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27] 켈파트라는 지명은 이후 네덜란드 해도에 표기되었고 프랑스의 지도에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6. 블라우의 일본지도(165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 7. 세부도

27.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웅진출판주식회사,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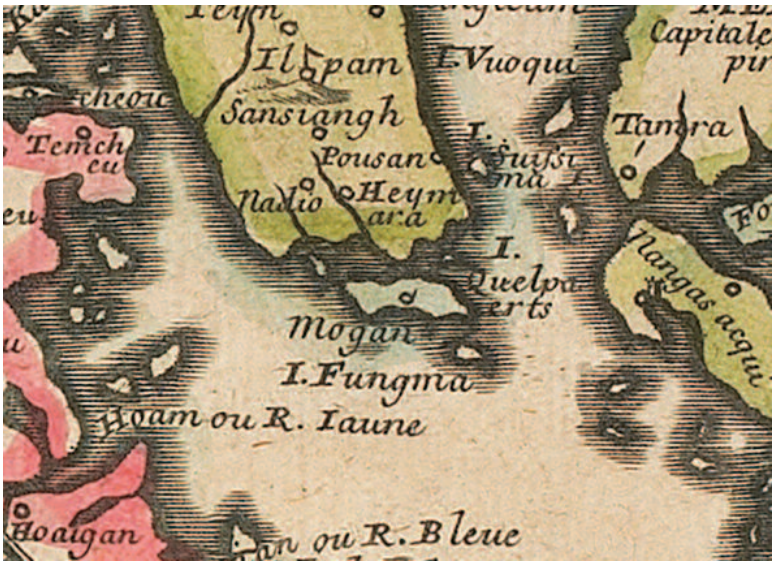


그림 8. 드 페르의 아시아 지도의 제주(1705년)

『하멜표류기』를 통한 제주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드 페르N. de Fer가 1705년에 만든 아시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제주도를 풍마I. Fungma와 켈파트I. Quelpaerts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지도에서 볼 수 없는 'mogan'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목안'은 『하멜표류기』에 나타나는 지명으로 제주목의 읍치를 당시 '목안'이라 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목안, 또는 성안이라는 지명이 제주에 내려온다.

8월 22 일 아침 무렵 우리는 다시 말을 타고 요새를 향해 가다가 아침을 먹었다. 그곳에는 전함 두 대가 있었다. 오후에 우리는 목간(Moggan: 목안) 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그 섬을 다스리는 목사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주지사를 목소(Mocxo:목사)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를 관청 앞마당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실 수 있는 죽을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마지막 음식이며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와 복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무장한 병사 약3000명이 중국 혹은 일본식 의상을 입고서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다.[28]

제주 지명으로 켈파트가 정착되면서 제주도를 풍마와 켈파트 두 개의 섬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당빌의 『중국령달단지도』에서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당빌은 서양 선교사 레지에 의해 중국에서 들여온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1932년 『중국령달단전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제주도가 그려져 있는데, 당시 제주도의 세 고을인 제주, 대정, 정의의 중국 발음을 음차한 'Ki-tcheou' 'Te-tching' 'Chan-y' 등의 최신 지명과 함께 'Fong-ma'가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한반도 남쪽

28. H. 하멜 지음, 신복룡 역주, 2005, 『하멜표류기』, 27-28쪽.

해상에 네덜란드 지도를 참고한 켈파트 섬을 그려 넣었다. 이 지도는 1735년 뒤 알드의 『중국지지』, 1737년의 당빌의 『신중국지도첩』에 수록되면서 이후 지도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양인이 그린 최초의 한국전도라 할 수 있는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는 풍마가 표기된 섬만이 있고 켈파트는 빠져 있다.

그림 9. 『중국령달단전도』의 세부도(1732년, 원각사 소장)

그림 10.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1735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풍마와 켈파트라는 2개의 제주도 인식은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지도에 반영되고 1797년 라 페루즈의 항해지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한국 근해 탐사도를 보면 남해안의 윤곽이 보다 정교해졌고 제주도와 울릉도의 실측 결과가 지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에는 남해안의 해안선 윤곽이 기존의 지도보다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남해안의 섬의 형태는 당빌의

그림 11. 라 페루즈의 항해지도(1797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중국령달단전도』의 것과 유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동남쪽의 제주도가 『중국령달단전도』에서처럼 Fongma로 표기했고 남해안의 중간 지점에 새롭게 측량하여 보다 정교해진 Quelpaert를 그려 넣었다.

4. 켈파트에서 제주로

19세기 중반 벨처의 탐험과 같은 실제 탐사의 결과 제주도의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이 알려지면서 이전의 풍마도와 당빌의 지도에 수록된 'Ki-tcheou' 'Te-tching' 'Chan-y' 등은 사라지고 켈파트 하나의 섬으로 표현된다. 에드워드 벨처Edward Belche, 1799-1877는 영국 해군으로 세계 각지의 해안선 측량에 참가했으며 1843년 1월에는 사마랑Samarang호를 이끌고 중국의 개항장에 이르는 항로를 정밀 탐사하였다. 그는 홍콩, 유구, 제주도, 일본, 필리핀 등을 조사하고 1846년 영국으로 돌아와 『사마랑호 항해기』를 출간하였다. 제주도에는 1845년 6월 25일에 도착하여 우도를 기지로 삼아 약 37일 동안 제주도와 거문도, 거금도 일대를 정밀 측량하고 중국인을 통역으로 대동하여 정의현의 조선인과 의사 소통하였다. 그는 제주도 해안선을 정밀 측량하고 한라산의 높이 1995m로 계산해 내기도 했다. 한라산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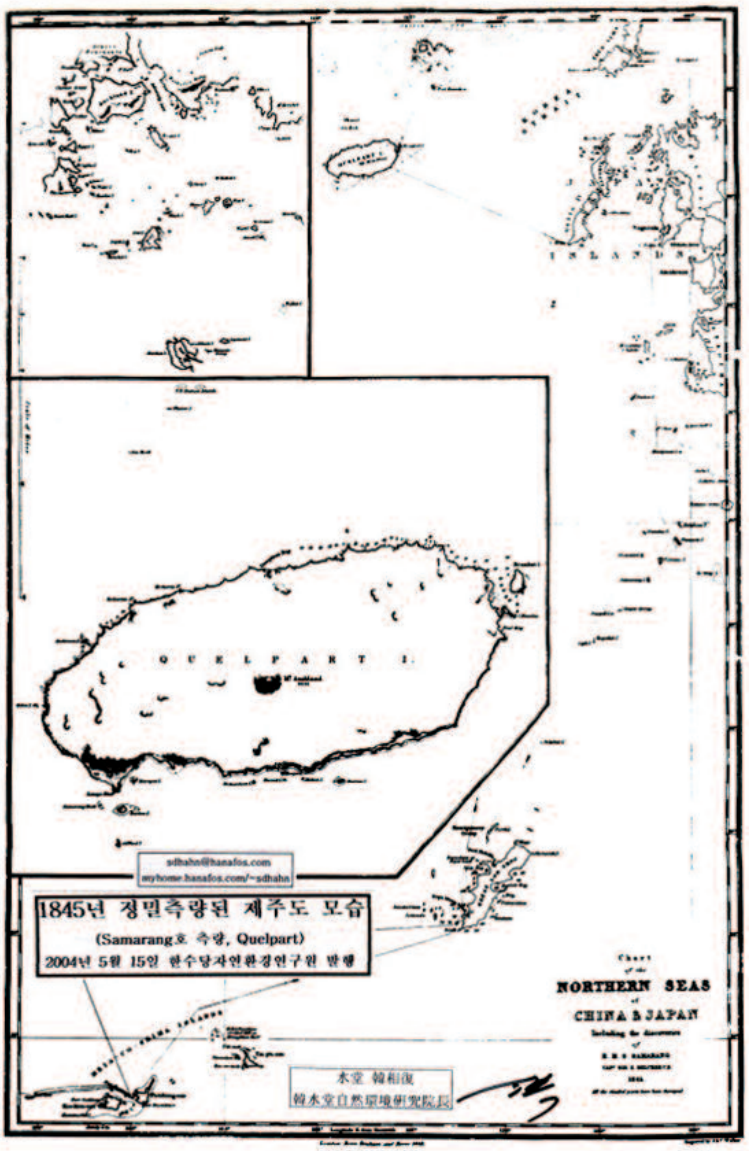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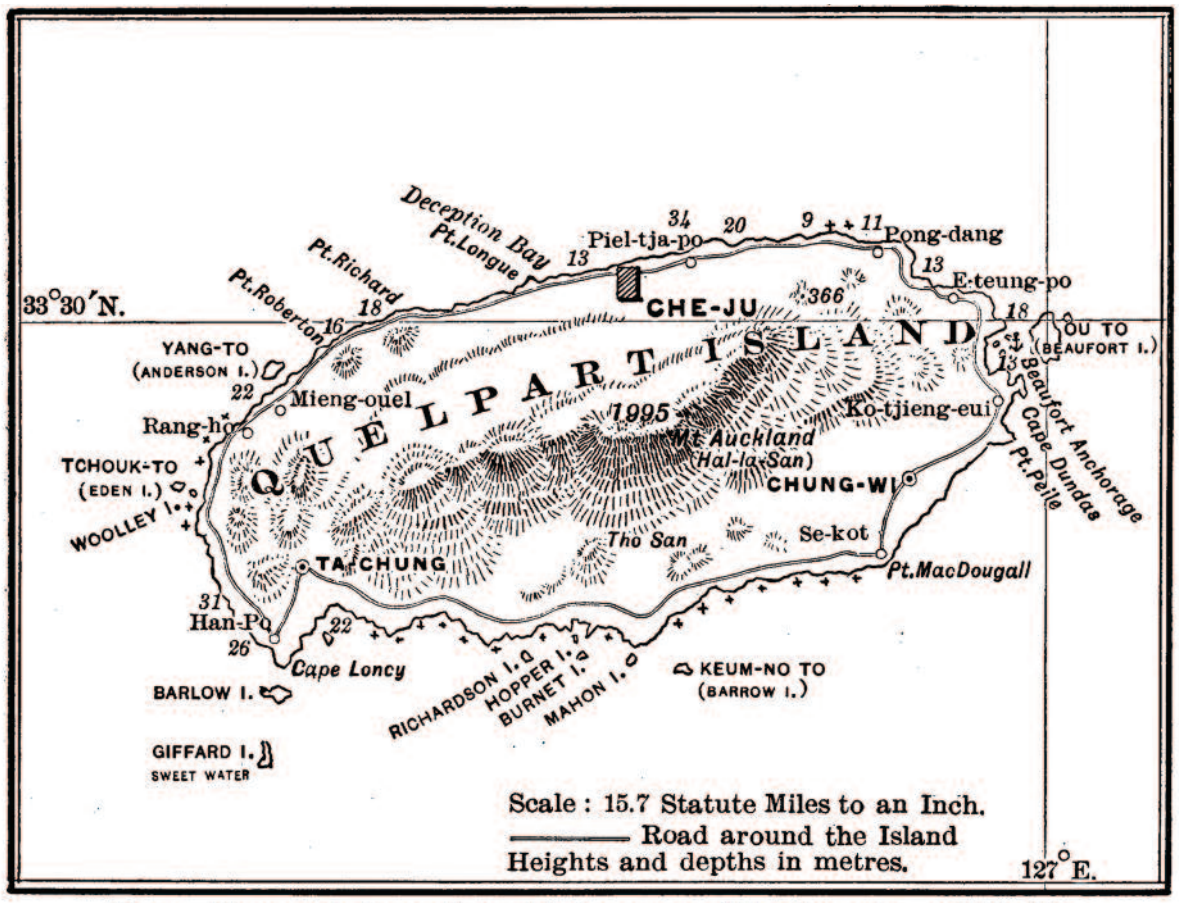


그림 12. 벨처의 해도와 제주도 지도(1848년)

그가 그린 지도를 보면 제주도의 해안선 윤곽이 실제와 거의 흡사하다. 제주도는 여전히 켈파트Quel-part)로 표기되어 있다. 다른 지도에서 보기 힘든 한라산이 그려져 있는데, 'Mt. Auckland' 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는 제주의 이미지가 더욱 정교해진다. 프랑스 육군 지리조사부에서 제작한 제주도의 지도를 보면 제주도의 지명은 여전히 켈파트섬QUELPART ISLAND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주, 대정, 정의의 세 고을 명칭이 표기되어 있고, 한라산도 'Mt Auckland' 와 더불어 'Hal-la-San' 이라는 고유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확립된 켈파트 지명은 20세기 초반에도 여전히 제주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의 '제주도I. Cheju' 는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NOTE.—The map is drawn from Asie 1:1,000,000, Flle 36 N. 126 E., published by the Service Géographique de l'Armée, Paris, 1898, corr. 1904.

그림 13. 프랑스 육군 지리조사부 제작 지도의 제주도(1898년)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SESSION 2 03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

정 석 근

| 국립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지금 세계 기후 변화 평가는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와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공동한 설립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1990년부터 약 5년 주기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펴내오고 있다. 지금까지 IPCC 평가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2020년이면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되어 생물종 다양성이 변하고 바다 수온 상승과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류 서식지 이동으로 바다 어업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 어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해양생물 서식지가 이동하고 계절적인 활동, 회유 유형, 개체수가 변하면서 생물종들 사이 상호작용도 바뀌고 있다고 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민감도는 사회 경제와 같은 기후변화 외 요인들 때문에 지역적으로, 또 나라마다 달라지며 따라서 그 위험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변해역도 지구 온난화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남한 지표면 기온은 약 1.3oC, 해양 표층 수온은 약 1.0oC 상승하여 세계에서도 수온 상승이 가장 빠른 곳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어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북서태평양FAO Fishing Area 61은 세계적으로 어획 생산고가 가장 높음은 물론 인구 밀도와 인구, 그리고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표층 수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10년 스케일의 생태계 체제변이가 크게 4번 일어났던 것으로 최근 요약되었으나 해역별, 생태계 분류군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번은 기존 북태평양 생태계 연구에서 10년 스케일 기후 변화에 따른 체제변환regime shift이 일어났다고 보고한 연도(1977, 1989, 1998년)와 일치하였고 나머지 1번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만 1982년에 일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40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 염분, 동물 플랑크톤 변화 양상을 해역별로 비교해보면 쓰시마 난류 영향을 받는 동해와 남해는 함께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담수 유입 영향을 많이 받는 황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와 서해는 동해에 비교해서 인간활동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0년 이후 4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평가되는 쓰시마 난류 해역 생태계 변이를 시기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7년 변화 이후로 쓰시마 난류 유입량이 증가하고 표층 수온, 특히 초겨울 표층 수온이 올라가고 표층 염분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6년은 한반도와 주변해역이 유별나게 따뜻했던 시기로 평가되었으며, 1976-1988년 동안 동해에서 혼합층은 더욱 두꺼워지고 전반적으로 봄 기초생산력은 감소했으나 가을 기초생산력은 증가하나 전반적으로 기초 생산력이 감소하고 따라서 동물 플랑크톤 현존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은

1977년 이전과 1978-1988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82년 무렵 변화는 북태평양 다른 해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를 전후하여 1981-1988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해역 수온이 표층에서 저층까지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198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어획고 어종 구성과 남해안 동물플랑크톤 종구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1982년 엘니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2년 이후 변화는 동물 플랑크톤에서는 요각류가 더욱 우점해졌으며 담수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황해에서 동물 플랑크톤 현존량과 종구성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그 특징이다.

1989년 체제변환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지구 규모의 기후 변동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경우 쓰시마난류 영향권인 동중국해와 대한해협 그리고 동해에서 수온이 갑자기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체제변환은 아직 그 발생 여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중이나 우리나라 표층 수온과 염분, 그리고 황해 동물 플랑크톤 현존량, 그리고 동서남해 동물 플랑크톤 군집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일단 평가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 증가가 연근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에 따라 전체적인 어획고는 큰 변화가 없으나 어종과 어업, 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대상 어종 변동을 살펴보면 전체 어획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개별 어종의 어획량 변동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 1950-1970년 동안 우리나라 어획고는 1950년대 초 약 10만 톤에서 1960년대 말 약 40만 톤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 1968-2008년 동안에는 1968년 약 40만 톤에서 2008년 130만 톤으로 3 배 이상 증가하였고, 1986년 170만톤을 정점으로 해서 전체 어획고는 100만 톤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가 원인은 자원량이 증가 했다기보다는 한국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어업 기술과 잡는 능력이 발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전체 어획고는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나나 다변량분석기법의 하나인 대응분석 결과를 보면 각 어종별 어획량은 큰 변동을 하였으며 그 주기는 10년 단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응분석에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어종은 1968-1976년은 꽁치, 1977-1982년은 명태, 1983-1990년은 정어리, 1991년 이후는 살오징어였다. 이렇게 대표어획어종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상승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체제변이(regime shift)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응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어획고가 변하는 어종은 앞서 언급한 명태, 꽁치, 정어리, 살오징어

외에도 대구와 참조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6가지 어종은 쓰시마난류 영향권 해역에서 주로 서식 잡히는 어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획물 종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쿠로시오 난류 지류인 쓰시마 난류 변동과 관련이 있으며, 기후변화와 쓰시마 난류 변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어종들 잠재 어획고와 그 주요 어획해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 전망하여 수산업이 겪을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산관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관련 수산분야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쓰시마 난류 변동이 우리나라 주변해역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수순환 모델로 전망해본 대한해협 수온 변화와 경험적인 회귀식으로부터 구한 각 어종의 어장 중심위도 변화는 소형부어류보다는 대형부어류에서 클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장이 북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은 방어, 삼치, 참다랑어 등 대형 부어류와 무척추동물인 살오징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형 부어류인 고등어, 전갱이, 그리고 저어류인 청어, 갈치 등은 약 10년 주기로 주어장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어장 위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자료가 부족하지만 2000년 이후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그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참다랑어도 방어, 삼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심어장이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참다랑어는 2005년 무렵부터 북위 33.5도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중심어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대형선망어업의 주 대상 어종인 고등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심 어장 위도 변화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북상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옥돔은 1995년에는 북위 33도 부근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나 2010년에는 제주도 주변 북위 33도 30분에서 형성되고 있다. 참조기와 갈치는 1985년에는 북위 32도 30분에서 지금은 33도 30분에 중심어장이 형성되어 제주도 소형 선박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유류비를 절약하면서 조업할 수 있는 좋은 어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갈치, 참조기, 옥돔은 그 중심어장은 북상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것이 사회경제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자료와 분석 방법 한계 때문에 단언하기 힘들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와 어장 북상에 따라 제주도 어업인들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어업인들 사이에 조업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갈치와 참조기 중심어장이 계속 북상한다면 제주도의 영세적인 소형 어선들은 대형 어선에 비교해서 조업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도 생계형 연안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힘들므로 경쟁에서 기업형 근해어업에 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 해안지역 해양생태계가 제주 연근해 주요 상업 어종의 산란장이나 성육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해안 해역을 모두 망라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난자치어 조사와 정치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에 따라 어획량과 성어기 변화는 민감하나 그 중심 어장 변화는 크지 않은 소형부어류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산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어업인들 자율과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수산자원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후변화에 따라 중심어장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참조기, 참다랑어, 방어, 삼치, 갈치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생태 연구, 수산자원관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대처 방안을 함께 개발하면 좋을듯 하다.

참고문헌

Gong, Y and Choi, KH. 2008. Fluctuations in abundance of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in the Far East J Environ Biol 29, 449–452.

Gong, Y, Jeong, HD, Choi, KH, Seong, K-T and Kim, S-W. 2006. Fluctuations in the abundance of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Far East regions during 52 years. Journal of Ecology and Field Biology 29, 1–16.

Gong, Y, Jeong, HD, Suh, YS, Park, JW, Seong, K-T, Kim, S-W, Choi, KH and Han, I-S. 2007. Fluctuations of pelagic fish populations and climate shifts in the Far-East regions. Journal of Ecology and Field Biology 30, 23–38.

Hwang, K and Jung, S. 2012. Decadal changes in fish assemblages in waters near the leodo ocean research station (East China Sea)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from 1984 to 2010. Ocean Science Journal 47, 83–94.

Jung, S. 2008. Spatial variability in long-term changes of climate and oceanographic conditions in Korea. J Environ Biol 29, 519–529.

Jung, S, Ha, S and Na, H. 2013. Multi-decadal changes in fish communities Jeju island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46, 186–194.

Jung, S, Kang, YS, Suh, Y-S, Yang, J-Y and Kim, J. 2007. Spatial variability in oceanographic conditions of sea waters off Korea in relation to the regional climate changes during the past 40 year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Annual Science Conference, Helsinki.

Jung, S, Pang, I-C, Lee, J-h, Choi, I and Cha, HK. 2014. Latitudinal shifts in the distribution of exploited fishes in Korean waters during the last 30 years; a consequence of climate change. Rev Fish Biol Fish 24, 443–462.

Kang, YS, Jung, S, Zuenko, Y, Choi, I and Dolganova, N. 2012. Regional differences in response of mesozooplankton to long-term oceanographic changes (regime shifts) in the northeastern Asian marginal seas. Prog Oceanogr 97–100C, 120–134.

Kim, S. 2010. Fisheries development in northeastern Asia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climate and social systems. Mar Policy 34, 803–809.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종합토론 01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고찰

전 영 준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장 |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해양 제주'를 대상으로 하여 선사로부터 현재까지를 조망하고자 하는 학술회의는, 문명 교류의 매개체인 바다와 그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읽어냄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으로 해양문화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획으로 생각된다.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늘 들어왔던 주제들이지만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범위로 압축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바다는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류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풍족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초기의 해양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바다를 둘러싼 교류나 각축도 바다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요구하였으며. 이때 이루어지는 문화 접촉과 정착은 일방적이면서도 상호 이해로 귀결된다.

제주의 선사시대와 탐라국 단계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고고 유물로 확인되지만, 이 단계에서도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유물과 그렇지 않은 유물의 혼재 양상도 동시에 볼 수 있음도 제주 고고학계의 성과이다. 탐라국 단계의 대외교류가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와 특징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화 또는 문화교류 상의 속성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즉, 그림으로 제시된 고산리 출토 유물이나 삼양동 유적의 漢式 유물, 산지항 출토 한식 거울과 중국화폐와 함께 변진한계 유물, 마한계 토기, 통일신라 토기 등의 출토품 등은 탐라와 주변 국가의 교류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교하고 세련된 유물이 제주 전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 지역만의 교류였는가 하는 의문이다. 또한 문화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교류 상의 이해를 전제한다면 선진 문화의 수입과 정착이라는 발전 단계상의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마한계나 통일신라의 토기와 같은 매우 정교한 제작술이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보여야 함에도 탐라식의 토기 제작술 이상의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미심쩍기 때문이다. 제작기법이 없었다면 보다 다양한 토기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에 국한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강박이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유한 속성을 지닌 문화나 문화 교류는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접촉과 정착과정의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共有된다.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취향

이나 버릇은 문화가 아니라 개성에 속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집단과 구분되는 어떤 공통적인 행위 · 관습 · 경향 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또 문화는 學習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공통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학습되지 않는 것은 문화라 할 수 없다. 예컨대 모든 인간은 먹고 잠을 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동물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본능에 따른 생리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자신의 소속된 집단에서 공유된 문화를 어릴 때부터의 社會化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할 때에만 그것이 문화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는 蓄積된다. 인간은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자신이 새롭게 경험한 바를 더해 다시 그 다음 세대로 전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되는 세대 간의 지식의 전달과정을 통해서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는 體系性을 지닌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요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야만 문화로 규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항상 變化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끝없는 변화와 생성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회집단의 문화적 요소가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즉 문화접변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 구분된다. 외부로부터 유입되었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식이 보다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전체사회에 확산됨으로서 발생하는 문화의 변화와 생성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상실한 낡은 문화요소들은 사리지게 되며 새롭고 유용한 문화요소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변화가 항상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는 공유 · 학습 · 축적 · 체계 · 변화의 다섯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 사회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화의 성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의지하여 본다면 제주에서 출토된 고고 유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즉 고대 탐라국의 문화 단계가 교류를 통한 수입품에 의존했던 것인가? 제작 기법의 전래없이 수입품과 고유한 문화의 양방향으로 발전했는가? 탐라국이 마한, 진한, 변한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믿는 문화단계였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등의 의문만 쌓이는 상황이다.

대체로 역사학계에서는 탐라국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려에 복속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런데 탐라국의 개국신화를 열어보면 수렵사회에서 정착 농경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개국신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렵사회는 구석기 단계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발전한 신석기의 농경 목축 및 정착의 특징을 지닌 문화 단계가 어떻게 하위문화 단계로 포섭되는가의 본질적 오류이다. A.J.토인비의 문명사관만 보더라도 선진문화 단계의 소수적 창조자와 다수 추종자 간의 문화교류 양상은 상호 교류를 표방한 일방적 통행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탐라의 개국신화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사방법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신앙체계를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 과정에서 바다에 기대어 사는 탐라인들의 생활을 살피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빌려왔음도 잘 알려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탐라국의 생성과 발전에 애니미즘 · 토테미즘 · 샤머니즘 등의 사상적 특질이 가미되어 있고, 절대자에 대한 기도와 갈망으로 탐라 사회가 영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탐라의 수많은 신화는 현재까지도 생활 속에 담겨 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기도 한다.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신화들을 재해석하고 전승할 때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거나 노동 양상에 따른 분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과 관련한 해석과 더불어 해녀할망당과 같은 원시적 신앙의 스토리를 녹여낸 콘텐츠로의 전환과 같은 시도도 있었으면 한다.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종합토론 02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을 통해 생각하는 제주도 조간대의 중요성과 위기

임 형 묵 감독

| 깅이와 바당 대표 |

지난 10년간 제주도 조간대를 관찰하며 촬영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바다의 독특한 환경, 생태 그리고 변화와 위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 조간대의 특징

조간대는 조수간만이 일어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하며 물 밖에 드러나는 시간이 있더라도 바다에 속한다. 최저조선에서 최고조선까지의 높이차 즉, 조차는 위 · 경도와 지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인천 부근 서해안 중부 지역이 가장 커서 10m에 달하고 동해 남부 포항 부근은 30cm 전후에 그친다. 제주도의 조차는 2.5m 전후로 서해에 비해 작은 편이다. 조간대의 넓이는 조차 외에 지형과 큰 관계가 있는데 해안이 급격한 경사로 이루어지면 조간대가 좁고, 완만할수록 조간대가 넓어 비교적 조차가 작은 낙동강 하구에도 넓은 갯벌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대부분 해안이 암반조간대로 이루어졌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이 많다. 일부 바위 절벽이나 가파른 바위로 된 곳도 있지만 그런 지역도 쇄파대(파도가 부딪히는 지대)에는 부서진 암석이 쌓여있어 독특한 암반조간대를 형성한다. 또 해수욕장 같은 모래 조간대에도 중간 또는 가장자리에는 바위가 있다.

제주도 암반조간대를 이루는 바위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것이며 대부분 현무암이다. 돌 자체가 다공질이거나 울퉁불퉁하고 풍화, 침식 등으로 파이고 갈라져 조간대를 이루는 암반의 형태는 대체로 복잡하다. 제주에서 빌레라고 부르는 편편한 암반도 세부적으론 요철과 틈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주도의 암반조간대에는 조수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생물들이 부착하거나 숨을 곳이 많다.

2. 제주도 조간대의 생물다양성

우리나라에서 갯벌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펄로 된 갯벌을 지칭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갯벌은 바닷가의 넓은 들판을 뜻하므로 모래나 돌로 된 곳도 갯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 암반조간대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오랜 기간 많은 매체를 통해 서남해안 펄갯벌의 중요성과 가치가 알려져 일반적으펄갯벌에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 암반조간대에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펄 표면은 무르고 유동적이어서 망둑어류와 게류 등 몇몇 종 외의 생물들은 표면에 오래 머무르기 힘들다. 모래는 더 불안정해서 살 수 있는 생물이 한정적이다. 가장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은 제주도 외도에 있는 알작지 같이 몽돌로 이루어진 해안이다. 돌이 파도에 구르며 부딪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생물이 다 부서진다. 이에 비해 제주의 일반적인 암반조간대는 생물이 부착하거나 숨어 살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특히 조수웅덩이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밀집된 곳이다. 암반 조간대 조수웅덩이에 대해선 많은 해양생물학자들이 주목하였고 연구했다. 조수웅덩이를 별이나 우주에 비유한 존스타인벡이나 현기영 같은 문학인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조수웅덩이의 생태가 거대한 대양의 축소판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있다. 조수웅덩이는 썰물에 공기 중으로 드러난 조간대에서 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수웅덩이는 극심한 염분, 온도, PH의 변화를 겪지만, 그곳에 적응한 생물들에겐 휴식처이고 피난처이며 번식과 성장에 중요한 장소이다.

제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류는 쿠로시오해류와 그의 한 갈래인 쓰시마난류이다. 정석근-(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

쿠로시오해류는 적도에서 데워진 바닷물이 타이완을 거쳐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라 온도와 염분이 높다. 이 해류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싣고 오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붙박이로 서식하는 해양생물 외에도 해류를 따라오는 손님 생물들도 혼재한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제주도가 생성되었을 당시부터 수없이 많은 생물이 제주 바다에 자발적으로 또는 떠밀려 왔을 것이고 그중 일부는 적응하여 살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 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지만 여전히 온대역에 속하며 저수온기엔 12°C 전후까지 내려간다. 감태, 미역 등 거대조류는 저수온기에 번성하며 많은 해양생물은 저수온기를 지나 수온이 상승할 무렵 번식을 하고 이때 바닷속 미생물과 플랑크톤 등 먹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넓게 펼쳐진 복잡한 형태의 암반조간대에 끊임없이 생물을 공급하는 해류 그리고 비교적 뚜렷한 4계로 인한 수온 변화, 해조류가 무성한 바다 등 환경의 다양성은 곧 생물다양성으로 이어진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서식 환경이 다양한 제주 조간대의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학자, 전문가 대부분이 인정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명한 연구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3. 제주 바당, 조간대의 변화와 위기

조간대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긴 어렵다. 어획량 같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증언과 관찰자의 시각에서 제주 바다가 훼손되고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아직 원인을 확신할 수는 없어도 제주 바다엔 거대조류(미세 조류의 반대 개념으로 미역, 다시마, 톳, , 모자반, 감태 등 눈으로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크기의 해조류) 군락이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산호, 말미잘류와 석회조류가 자란다. 말미잘이나 산호 중에는 광합성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많으며 석회조류 또한 광합성을 하므로 거대조류가 밀집한 곳에서는 성장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역, 감태 특히 모자반류가 줄어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번성하게 된다. 또 이렇게 한번 천이가 일어나면 거대조류가 다시 부착하기 힘들다.

특히 무절석회조류가 죽으면 돌 표면에 석회질이 남아 갯녹음 즉, 백화현상이 생긴다. 거대조류가 자라지 못하는 곳 중 하나가 양식장 배출수 부근이며 그 원인은 양식장 배출수의 먹이 찌꺼기와 배설물로 수중 탁도가 높아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유기물이 부패하여 바닷물이 산성화된 것 때문일 수도 있다.

조간대는 아니지만, 서귀포 등지의 연산호군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연산호 중 어떤 종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백송 같은 경우 최근에 이끼벌레의 공격을 받는 개체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산호군락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종도 많이 발견된다. 그중 주목할만한 것은 연산호가 아닌 돌산호류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특히 산호초를 만드는 조초산호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산호가 많아진다면 먼 미래엔 제주도에도 산호초(죽은 산호의 뼈대가 쌓여 만들어지는 섬)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엔 산호가 없거나 많지 않던 제주시 북쪽 바다에도 연산호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엔 제주 조간대가 떠밀려온 괭생이모자반과 급속히 번성한 구멍갈파래로 뒤덮여 새로운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계절적 요인이 큰 것에 반해 구멍갈파래는 제주 연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수질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모두 생태 순환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 바다는 기후변화와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조간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탑동과 이호 매립, 강정해군기지건설, 화순 · 애월항의 대규모 확장, 기타 중소규모 매립,항포구 방파제와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조간대가 사라지고 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신항만은 4.9km의 방파제가 건설되며 현재 제주시 탑동 매립 면적 16만㎡에 비해 8배가 넘는 128만3000㎡가 매립된다. 만약 지금의 계획대로 신항만이 건설된다면 건설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북부 해양환경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4. 제주 바다를 보는 시각

'해양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이란 거대한 주제에 관한 존경하는 여러 연구자의 발표 논고를 통해 제주는 생성되는 순간부터 바다의 영향을 받았고 바다를 통해 교류했으며 바다에서 탄생한 문명임을 알 수 있었다. - 김경주(선사 · 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

또한, 제주의 정체성은 섬이란 것에 있으며 제주濟州라는 호칭은 한반도에 바라본 용어로 제주사람 입장에서는 섬나라라는 뜻의 탐라耽羅에 더 애정 어린 시선을 갖게 된다고 했다. - 홍기표(해상왕국 탐라)

하지만 이제 제주는 항공으로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도달하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바다에 대한 의존이 많이 줄었고 해상물류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휴양과 레저의 장소로만 여겨진다. 과거엔 제주의 의식주, 관혼상제 대부분이 바다와 관련이 깊었으나 지금은 제주에서조차 일상에서 제주 해양문화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어촌 지역의 어촌계, 해녀회의 공동작업과 역할분담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것이 남아 있는 듯하다.

제주 바닷가 사람들의 속담 중엔 "바당이 어멍집보다 낫다."또는 "친정에 가도 못 얻은 저냑고심 바다에 가민 얻나."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친정보다는 바다에 먹을 것이 많다는 뜻이다. 역사 이래로 불과 수십 년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굶주렸다. 그때 그들에게 바다는 어머니의 집보다 더 고마운 곳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조간대에는 습관적으로 먹지도 않거나 먹을 필요도 없는 해양생물을 놀이로 잡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바다는 게나 고둥을 잡는 곳이 아니다. 과거에 바다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이었다면 이젠 생태 환경적으로 인류가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주에서 살며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제주에서 '자연' 은 한라산이고 '습지' 는 중산간이나

오름 정상의 담수 습지를 뜻한다는 것이었다. 바다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친밀감이 과거와 큰 차이가 있는 듯하다.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의 삶과 문명은 큰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래서 바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구는 70% 이상이 바다로 덮혀있고 바다의 평균 깊이는 3,682m에 달한다. 그리고 생물 종의 80%가 바다에 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을 흡수한다. 지구에 생물이 나타난 것도 유지되고 있는 것도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바다를 쉽게 막지도 못한다. 그것은 물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고 물에 녹아있은 다양한 성분과 수없이 많은 생물이 만드는 결과이다.

지구에서 바다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심해에서 어떤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주변 바다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

OCEAN JEJU

종합토론 03

표도와 표류의 해양 제주와 제주인 표환 사례[29]

김 동 전

| 국립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표류와 표도,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

2020 국립해양박물관 국내학술대회 "해양 제주, 그 문명사적 성찰"에서는 모두 6개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사 · 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 신화 속의 해양제주, 제주인의 세계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서양인의 제주인식과 그 문명사적 접촉, 기후변화와 제주바당 수산생물이 그것이다. 고고학, 역사학, 신화학, 수산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제주 해양의 문명사적 의미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발표 주제가 매우 다양해서 각 주제발표마다 일일이 토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발표에서 다소 소외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표류와 표도를 통한 해양제주' 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인들의 삶과 역사는 바다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는 바다 밭을 일구고 주변 지역과의 끊임 없는 교류와 교역 속에서 그 위상을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와 바다라는 키워드를 상정할 때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분기점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의 멸망이었다. 원의 멸망이 제주인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열려 있던 동아시아 해역이 서서히 닫힌 바다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점이다.

원의 멸망이전 탐라국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제주바다는 분명 열린 바다였고, 제주인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동아시아 해역을 누비고 다녔다. 원의 세계대제국 건설 실패와 원명교체기 원에 의해 추진했던 제주피난궁전 프로젝트의 좌절, 뒤이은 원의 멸망으로 해금정책은 명에게 넘겨졌다. 명의 주원장은 1371년 연해주민의 出海를 막는 해금정책을 발표하였다. 명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여기에 조선은 공도정책을 더 보탰다. 조선이 공도정책을 추진했던 하나의 이유는 여말선초부터 동아시아 해역에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남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로 옮겨졌지만, 제주인들은 그냥 제주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여말선초 제주에 거주하던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을 전부 육지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추자도에 살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제주로 옮겨졌다. 탐라의 해양실크로드는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어져 나갔다.

---

29. 김동전, 「18세기 '問情別單' 을 통해 본 중국 漂着 濟州人의 漂還 실태」, 『한국학연구』 제4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8. 참조.

그렇다면 조선시대 제주 바다는 동아시아 세계와 단절된 닫힌 바다로만 존재하였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비록 바닷길이 점차 닫혀 나갔지만 제주-바다-동아시아의 연결 구도 속에서 제주는 주변지역과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즉, 닫힌 바다에서도 사면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던 제주인들은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나 다른 지역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제주인들은 끈질기게 동아시아 해역을 왕래하며, 제주 중심적 세계관을 키워왔다.

인위적인 항해를 통한 적극적 교류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표류의 중심에 있었던 제주인들의 표류 실태와 표류의 역사적 의미를 동아시아 해양문화사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해외의 일본 · 중국 · 오키나와 · 대만 · 운남 등 동아시아 각 지역의 표류민에 대한 공동의 연구로 확대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표류와 표도를 통한 동아시아 해역의 새로운 이해와 향후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동아시아해역의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표류민의 성명,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 직역, 해상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한일관계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연구도 시도되었다. 제주지역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제주계록』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와 제주인의 표류실태를 파악한 연구 등이 있다.

2. 제주인의 표류실태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왔던 제주인들은 바람을 만나 표류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면서도 표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호적중초 말미에「표류 ㅁ구」등 만일에 대비하여 표류민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경우 도망자와는 구분해서 기록해 놓았다.

해난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동아시아 해역에 침몰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 하였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바다로 나간 배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피안의 섬, 이어도' 와의 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이 섬을 본 제주인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 섬을 만나면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제주인들은 늘 가지고 있었다.

조난을 당한 배가 없어지면 대부분은 일단 실종된 것으로 파악한다. 인근 지역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진휼정책에 의해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종했을 경우에 다행히 일본이나 琉球,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표류하였을 경우에 동아시아 3국간에는 송환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돌아 올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글자에 문외한인 경우에는 표착지에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제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사례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귀환 시일은 매우 많이 소요되었다. 순풍을 기다려 해로를 통해 바로 귀환되는 것이 아니라, 귀환절차 및 경로가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수 개월 혹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표류한 경우는 북경, 일본에 표류한 경우는 대마도를 거쳐 송환되었다. 琉球에 표착한 경우의 귀환경로는 중국 동남부 지방을 통해 대륙을 종단하여 북경에 도착하여 국왕을 뵙고 난후 요동 · 압록강을 건너 의주 · 한양에 도착하여 국왕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보고한 후에 전라도를 거쳐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長崎, 대마도를 경유하여 부산, 전라도를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귀환시일이 매우 많이 소요되다 보니, 제주에서는 조난을 당하고 1주일, 1개월 등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면 그 가족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단념하고 招魂墓를 만들어 대 · 소상은 물론 제사를 지내기에 이른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대 · 소상날 혹은 제삿날 밤에 뜻밖에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귀환일자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송환기일이 매우 많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기 위하여 〈표 1〉을 작성하였다.

〈표 1〉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

시기	표류 지역						제주인의 표류현황
	일본	오키나와	중국	안남	우리나라	기타	
세종	3						3
문종	1						1
단종	2		1				3
세조	2	4	1				7
성종	4	4	9			1	18
연산군	1	1					2
중종	5	1	9			7	22
인종		1					1
명종		1	5				6
선조	2		1			2	5
광해군	1						1
효종	1						1
현종	4					1	5
숙종	14	1	3	2		7	27
경종	5						5

영조	33	3	10		2	29	77
정조	12	1	3			5	21
순조	16						16
헌종	13		1			2	16
철종	12						12
고종	48	1	2		1		52
합계	179	18	45	2	3	54	301

이 표에 의하면, 제주인의 표류 건수는 301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건수는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에 불과하다.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제주계록』 외에 『표인영래등록』(규12956),『표인영래차왜등록』(규12954) 등의 국내 자료라든가, 『漂民被仰上』 『公義被仰上』(慶應大學圖書館 소장) 등과 그 외 수많은 일본측 자료, 아직 잘 파악되고 있지 않은 중국측 자료 등을 감안할 때 제주민 표류 건수는 1,000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즉, 지리적 여건상 해상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표류 건수는 상상을 초월하리라 본다.

301건을 통해서 볼 때, 조선전기가 68건, 조선후기가 233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 표류가 빈번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 자료가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간의 송환체제가 조선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표류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영조 때로 77건에 이른다. 비교적 18 · 19세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자료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301건 중에 179건이 일본 표류기록이다. 오키나와가 18건. 중국이 45건, 안남 2건, 국내 3건, 기타 54건이다. 기타 54건은 표착지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인데, 표류 기록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해 본다면 상당수는 표착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3. 중국 표착 제주인 표환 실태 사례

표환인은 표류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漂人이라고도 한다. 표환인 문정별단의 주요 내용은 표환인의 거주지, 표류 일시, 표착지와 표착지의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지형 · 민속 · 의복 · 음식 · 農桑 · 城池 · 군병, 표착지에서의 이동 거리, 경유지에서의 견문 내용, 체류일자 및 이국에서 대우받은 사항 등 이다. 개인이 남긴 표류기나 표해록 등에 비하여 문정별단은 정해진 질의 내용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문정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단편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생환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에는 유익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18세기 제주 표환인 문정별단은 시기적으로 영조 17년(1741)에서 정조 3년(1779)에 해당하는 9개 사례이다. 즉, 영조 17년(1741) 김철중(19명), 영조 34년(1758) 김해백(40명), 영조 38년(1762) 김중경(7명), 영조 41년(1765) 김순창(8명), 영조 46년(1770) 부차길(8명), 영조 51년(1775) 김세발(7명), 정조 2년(1778) 5월 고만재(13명), 정조 2년(1778) 8월 고수만(46명), 정조 3년(1779) 윤도준(9명) 등 9개의 표환 사례이다.

첫째, 영조 17년(1741) 제주 표환인은 김철중 일행 19명이다. 1741년 2월 29일 표류하여 3월 21일 중국 절강 태주부 임해현 전잠도에 표착하였다. 그후 항주를 거쳐 북경에 도착하였고, 귀국할 때는 심양, 봉성, 의주를 거쳐 11월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표류한지 9개월만이었다. 출륙의 목적은 제주 아전 김철중이 사복시에 말 안장을 진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외에 제주에 장사왔던 나주 상인 이극중도 함께 동승하였다. 표환인들은 귀환 중에 은, 唐錢, 쌀, 염장, 술, 옷, 버선, 신발 등 음식과 각종 생활용품을 제공받았다.

둘째, 영조 34년(1758) 제주 표환인은 김해백 일행 등 40명이다. 표류 선박에는 제주목과 정의현 외에 개성, 서울, 나주, 진도, 청안, 보은, 원주 등 7개 지역 거주자 등 모두 41명이 동승하였다. 표환인 중에 갓양태 행상인은 개성 상인 김응택을 비롯해 모두 11명이었고, 금주의 죄목으로 제주에 유배되어 있다가 풀려나 배에 탔던 인물이 6명, 유배 죄인 관련 가족이 4명, 그리고 유배 죄인들의 호송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목 형리와 사령 등 6명이 동승하였다. 또한 말 안장과 山果 진상을 위한 색리 5명, 이전미 담당했던 감관 1명, 뱃사공 7명이었다. 이들은 영조 34년(1758) 1월 4일 표류하여 4월 18일 대만에 표착하였고, 하문부-복건성-통주를 거쳐 7월 21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에 귀환하였으므로 9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대만에서는 주로 당전, 은화, 大布, 大米, 돼지, 염소 등을 제공받았다.

셋째, 영조 38년(1762) 4월 제주 표환인 7명의 사례이다. 임피현 나리포에서 쌀을 구입하고 제주로 돌아오던 중에 표류한 것이다. 임피현 나리포에는 제주의 흉년에 대비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관리하고 있었다. 표환인들은 무명, 미역, 갓양태, 말총으로 쌀을 구입하고 제주 이전미 등을 배에 싣고 보길도에서 순풍을 기다린 후, 영조 37년(1761) 8월 6일 출항 했다가 표류해서 8월 17일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8월 21일 중국 영성현 표착하였다. 그들은 제남부에 25일간 체류하였다가 동년 12월 4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표환인들은 북경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영조 38년(1762) 2월 19일 북경을 출발하여 4월 한양에 도착했다. 접대 받은 물품은 바지, 식량, 방한구, 버선, 신발, 양피옷, 이불, 은자, 양피 털버선 등이다.

넷째, 영조 41년(1765) 제주 표환인 김순창 등 모두 8명의 사례이다. 박천망이 병사하여 표환인은 김순창, 강재필, 임창성, 양해창, 이귀례, 김정태, 고여성, 하영창 등 8명이다. 모두 제주목 좌면 김녕리 포구에 거주하는 船人들이었다. 이들은 나리포에서 제주로 이전할 쌀을 실어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영조 41년(1765) 2월 11일 제주에서 표류하여 윤 2월 27일 중국 복건성 하포현에 표착하였다. 동년 6월 26일 북경에 도착하여 문정을 받았고, 그후 통주, 책문 등을 거쳐 동년 9월에 귀국하였다.

다섯째, 영조 46년(1770) 제주 표환인 부차길 등 8명의 사례이다. 표환인들은 제주목 중면 별도리에 거주하는 船格으로 제주 구휼을 위한 나리포창의 이전곡 360석을 싣고 제주로 오다가 영조 46년 4월 22일경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장산도에 표착하였다. 관동을 거쳐 5월 8일 심양에 도착하여 문정을 받고 15일간 심양에 머물다가 동년 6월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여섯째, 영조 51년(1775)년 12월 제주 표환인 김세발 등 7명의 사례이다. 모두 제주목 우면 도두리 거주자들인데, 영조 51년 5월 1일 고기 잡이를 하다가 표류하였다. 5월 11일 중국 절강성 한 섬에 표착한 후에 합주부 임해현, 절강성을 거쳐 10월 10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후 한양에 도착한 것은 동년 12월이다.

일곱째, 정조 2년(1778) 5월 제주 표환인은 고만재 등 13명의 사례이다. 전복과 공마 진상, 공작미 운반 업무, 행방불명된 매부의 생사 확인 등을 위해 제주를 출륙하였다가 제주로 돌아오기 위하여 정조 원년(1777) 9월 21일 영암 백도에서 출항해서 표류하였다. 표류인들은 10월 11일 절강성 관산도에 표착하였고, 옥환을 거쳐 정조 2년(1778) 1월 11일 항주에 도착하였다. 그후 3월 11일 북경에 도착하여 문정을 받았고, 1개월 동안 북경에 머물다가 4월 13일 북경을 출발하여 5월 한양에 도착했다.

여덟째, 정조 2년(1778) 8월 제주 표환인은 고수만 등 46명이다. 즉, 제주 거주자 高守萬 등 41명, 樂安 거주자 秦光春, 京城 거주자 李辰雄 등 3명, 충청도 稷山 거주자 崔昌起, 公山 거주자 金得生 등이다. 이들 표환인들은 청귤과 추인복 진상, 행상인들이었다. 정조 2년 2월 28일에 배를 타고 제주를 출항하여 다음 날인 2월 29일 추자도 앞 바다에서 표류하였다. 3월 5일 강소성 소주부 海門縣 永阜沙에 표착하였다.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북경에 도착한 것은 윤 6월 2일이었다. 그후 동년 8월에 귀국하였다.

아홉째, 정조 3년(1779) 제주 표환인은 모두 9명이다. 모두 행상인으로 제주 외에 임피현 거주자도 동승하였다. 당시 임피현은 제주 구휼에 대비한 나리포창이 운영되고 있어서 빈번한 교류가 있는 지역의 하나였다. 표환인들은 정조 3년 1월 4일 출항하여 추자도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1월 18일 중국의 塞沙洪島에 표착하였다. 그후 숭명현, 소주부, 절강성, 오현을 거쳐 5월 2일 북경에 도착하였고, 동년 7월에

귀국하였다.

결국 9개 사례를 통해서 볼 때에 표류지역은 대부분 제주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표착지는 절강성 전잠도, 관산도, 영성현, 복건성 하포현, 장산도, 소주부 영부사, 새사홍도 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일대와 대만 지역에 이르고 있다. 귀환 경로는 북경을 거쳐 심양, 책문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귀환 경로 중에 대접 받은 내용들은 대부분 음식과 의류이다. 쌀, 돼지고기, 좁쌀, 道尾魚, 메밀국수, 單長衣・單袴・履子, 大布, 大米, 염소, 바지, 방한구, 버선, 신발, 양피옷, 이불, 양피 털 버선, 은자, 당전, 은화 등이었다.

표환인들의 출항은 말 안장, 말, 귤, 전복 등의 진상, 나리포창의 곡식 운반, 갓양태 등의 행상, 유배, 어업 활동 등을 하다가 표류하고 있다. 9개 사례 표환인 총 156명 중에 나이별 분포는 10대 4명, 20대 34명, 30대 55명, 40대 36명, 50대 19명, 60대 6명, 70대 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 활동이 강한 사람이 많이 표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양진영, 박천망의 경우처럼 병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검시가 이루어진 후에 장례가 단행되었다. 제주 거주 사실을 속이고 거짓 진술하는 諱稱은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강진, 나주 출신임을 밝히는 사례가 있었다.

2020
국립해양박물관
국내학술대회

해양 제주,

OCEAN JEJU

그 문명사적 성찰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대강당

주관 / 주최

국립해양박물관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제주대학교박물관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